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청년 1인가
19일까지 입주자 공모

고창군은 청년 1인가(청년상접)에 입주할 청년단체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도립공원 내 위치한 청년 1인가는 청년의 창업역량을 높이고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에 개소한 고창군 최초의 청년상점이다. 기존 입주단체인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의 사용 계약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청년 1인가를 운영할 청년단체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대표가 청년(18세 ~ 45세 이하)이고,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이다. 고창군 특산품 또는 농수축산생산물들을 전시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심사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안보단체협의회
안보강연회 개최

부안군 안보단체협의회(회장 김동선)는 지난 9일 향군회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보강연회는 재향군인회 소속 이택범 안보교수를 초청해 6·25 전쟁이 남긴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공간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강연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안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김동선 회장님과 이택범 안보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보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선 안보단체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보교육 및 강연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굳건한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품질 친환경쌀 심포지엄 개최

고창군, 지역 적합 우수품종 도입 ·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확대 도모

고창군이 친환경쌀 브랜드 가치 향상과 생산단지 확대를 추진한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단지 확대 심포지엄’이 열렸다. 벼 육종전문가,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쌀유통전문가, 고창군 벼 재배농가,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지역 적합 품종 선정과 재배기술 교육, 지역별 쌀브랜드 사례 및 고창쌀 상품화 전략, 친환경 고창쌀 생산단지 확대 전략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박사(작물유통과), 메타브랜딩 박창기 대표, 한결 RFC 박종대 대표가 분야별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고창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여곡친환경단지 회장, 고창군수도연구회 회장, 흥덕농협 조합장 등이 참여하여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방안 등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고창 쌀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브랜드 확립과 대외 홍보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노을초코파이, 1년간 2500여만원 판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 행복장터 등서 큰 인기… HACCP 인증 100% 수작업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특산물과 자활생산품의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전북부안지역자활센터의 노을초코 초코파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노을초코 초코파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이 제품은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난 1년간 2513만 7000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 위치한 행복장터에서는 무려 1755만 2000원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소 소비자들 사이에서 명실상부한 인기 간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성과는 지역 자활센터가 생산한 품질 높은 제품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부안군이 자활센터와 함께 지역에 희망과 꿈을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자활생산품의 가치를 알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기

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노을초코 초코파이와 같은 품질 높은 자활생산품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 자립을 돕는 중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산물과 자활생산품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을초코 초코파이는 부안군의 지역 생산품이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례로 자리잡았으며, 앞으로도 부안군과 함께 더욱 큰 유명세와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 · 수탁 업무 협약 체결

부안군은 10일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과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지식의료재단 신세계효병원(이사장 김현주)과 위 · 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부안군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 기관의 재정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 후 신세계효병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협약에 따라 신세계효병원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 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며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종석 센터

장은 “부안군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신세계효병원의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부안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우수기관 연이어 선정

국민행복민원실 신규 인증, 공간정보 발전 유공 장관상 등 기관 포상

정읍시가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국가공간정보 유공 표창,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 선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민원·지적 행정의 선진화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지난 5일 전북자치도가 주관한 2024년 토지·지적관리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지적행정 선진화, 지적재조사 사업 활성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 9월에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이 제도는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환경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주어지는 것으로, 시는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인증기간을 2027년까지 확보했다. 또한 9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

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 효율적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월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국비 14억2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28억5000만원을 투입, 도시 지역 약 95km에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해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민원지적과는 정읍시 주관 청렴사례 우수부서 및 팀장 벤치마킹 우수제안 선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며 내부 혁신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민원지적과의 성과는 정읍시의 민원·지적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라며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겨울철 가축 분뇨 퇴 · 액비화 관리 당부

정읍시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가축 분뇨 퇴 · 액비화 시설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10일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퇴 · 액비화 시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미리 점검과 보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시설이 외부 온도에 의해 과도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열 처리를 강화하고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조치를 권장했다. 이를 위해 지붕과 벽면 등에 단열재를 추가하거나

보수 작업을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 · 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관리해 쾌적한 환경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눈과 얼음으로 인해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시설 주변에 눈과 얼음이 쌓이지 않도록 제거하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설 주변 도로나 통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대비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개최

정읍시청소년수련관(관장 최영락)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하반기 지원협의회를 통해 내년 사업 방향성과 지역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오전 11시에 열린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예산 감소에 따른 지역 지원 확보 방안 청소년 모집 홍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과후아카데미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로, 저녁 식사와 등하원 차량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